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능함과 사회적 관계가 한국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나 진 경[†]

서강대학교

허 진

JTBC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들의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능함과 사회적 관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같은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그 사람의 내재적 속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의 얼굴에 드러나는 개인적 속성(예를 들면, 유능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얼굴에서 지각되는 사회적 속성(예를 들면, 인간관계)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고자 초등학교 3학년생 92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에게 60쌍의 얼굴 사진을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쌍 중에서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유능함)”과 “더 친구가 많아 보이는 사람(사회적 관계)”을 선택하여 보고하였다. 참가자들은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제시된 얼굴 쌍은 실제 선거의 당선자와 낙선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 결과, 친구가 많아 보일 것 같은 후보자가 당선자일 확률은 낙선자일 확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유능하다고 지각된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즉, 얼굴에서 지각된 유능함은 선거 결과를 우연 수준 이상으로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얼굴에서 지각된 사회적 관계는 선거 결과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런 결과는 상호의존적인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의 선거에서는 유능함과 같은 후보자의 개인적 속성 보다는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적 속성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얼굴 지각, 선거, 인상 형성, 문화, 사회 인지

* 본 연구의 자료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과 서강대학교 사회및조직심리연구실에서 공동으로 수집하였으며 결과 일부가 해당 방송에 이미 소개되었다.

† 교신저자: 나진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다산관 344호

Tel: 02-705-8834, E-mail: jinkyung@sogang.ac.kr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으로 일컬어진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 심리학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인 선거에서도 사람들의 판단은 피상적인 정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Antonakis & Dalgas, 2009; Sussman, Petkova, & Todorov, 2013; Todorov, Mandisodza, Goren, & Hall, 2005). Todorov와 동료들은 유능해 보이는 얼굴의 후보자가 실제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Todorov et al., 2015).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결과는 한국에서 반복 검증되지 않았다(Na, Kim, Oh, Choi, & O'Toole, 2015). 즉, 얼굴만 보고 판단한 지각된 유능성이 미국 선거 결과는 우연 수준 이상으로 잘 예측하였지만 한국 선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한국은 상호의존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유능성과 같은 개인의 내재적 속성이 사회적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유능성과 같은 개인적 특질이 아닌 사회적 함의가 있는 특질을 유추하게 하면 어떨까?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만큼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유능함은 한국의 선거 결과를 의미있게 예측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얼굴에서 지각된 유능함과 사회적 관계가 한국의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얼굴에서 성격 유추하기(Face-to-trait Inferences)와 문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성격 및 내재적 속성을 유추하는데 100ms도 걸리지 않는다(Todorov, Pakrashi, & Oosterhof, 2009). 이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이 자동적임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또한 얼굴에서 성격을 유추하는 것에서 사람들의 합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Oosterhof &

Todorov, 2008). 즉, 어떤 사람에 의해 능력이 있거나 믿을만하다고 여겨지는 얼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똑똑해 보이거나 믿을만하게 보인다. 더욱이, 얼굴에서 성격을 유추하는 것에 관한 만 3세의 아이들도 어른들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ogsdill, Todorov, Spelke, & Banaji, 2014). 이런 결과는 얼굴에서 성격을 유추하는 과정에 사회적 경험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세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얼굴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내재적 속성을 유추하는 과정은 자동적이고, 사람들 간에 합의성이 높고, 사회적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도 미미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도 얼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탕으로 내린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미국인과 터키인(Sussman, Petkova, & Todorov, 2013), 미국인과 일본인(Rule et al., 2010), 미국인과 한국인(Na et al., 2015)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성격을 유추하는 과정에서의 문화 간 유사성이 확인되었지만 유추된 속성을 사회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문화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상호독립적인(Independent) 문화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 신념, 태도와 같은 내재적 속성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는다(Imada & Kitayama, 2010; Kitayama, Duffy, & Uchida, 2007; Markus & Kitayama, 1991; Na & Kitayama, 2012). 더욱이, 상호독립적인 문화권의 사람들은 개인의 내재적 속성이 안정적이고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Choi & Choi, 2002; Suh, 2002). 즉, 어떤 사람이 특정한 성격 특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녀)는 그 성격 특질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런 성격일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속성을 유추했다면 그 정보는 그 사람에 관

한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상호독립적인 문화에서는 특정 특질을 암시하는 얼굴상이 사회적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Antonakis & Dalgas, 2009; Todorov et al., 2005). 구체적으로 Todorov와 동료들의 연구(2005)에서 참여자들은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화면에 제시된 두 사람은 같은 선거에 참여한 당선인과 낙선인이었다. 비록 참여자들은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했지만, 얼굴이 유능해 보인다고 선택된 사람이 당선자일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능함이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얼굴에 드러나는 유능함이 실제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Todorov의 최초 연구는 미국 선거를 이용한 것이었지만 이런 결과는 이후 프랑스와 스위스 등 다른 서구권에서도 반복 검증되었다(Antonakis & Dalgas, 2009).

하지만 Na와 동료들은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능함이 상호의존적인(Interdependent) 문화의 선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Na et al., 2015).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행동이 그 사람의 내재적 속성이 아닌 그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Imada & Kitayama, 2010; Kitayama, Duffy, & Uchida, 2007; Markus & Kitayama, 1991; Na & Kitayama 2012). 예를 들어, 제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유능한 사람보다 일을 못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또한, 어떤 사람의 내재적 속성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쉽다고 믿는다(Choi & Choi, 2002; Suh, 2002). 즉, 학교에서 내성적인 사람이 친구들과 있을 때는 매우 사교적일 수 있으며 지금 유능한 사람도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 특정 속성을 유추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관련된 판단을 내릴 때 그런 정보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Na와 동료들은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미국과 한국 선거의 당선인과 낙선자의 얼굴을 보여준 후, 두 사람 중에서 더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학생들이 유능해 보인다고 선택한 얼굴이 미국 학생들에게도 유능하다고 지각되었다. 이는 얼굴에서 성격 특질을 유추하는 방식에서의 문화 간 유사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지각되는 유능함은 미국 선거 결과는 예측하였지만 한국 선거 결과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즉, 한국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에 의해 유능하다고 판단된 얼굴이 미국 선거에서는 당선자일 확률이 낙선자일 확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한국 선거에서는 당선자일 확률과 낙선자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얼굴에서 지각되는 유능함이 상호 독립적인 문화와는 달리 상호 의존적인 문화에서는 사회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음을 암시한다.

얼굴에서 지각되는 유능함 이외의 속성과 문화

지금까지의 논의는 얼굴에서 유능함을 지각하는 방식에서는 문화 간 유사성이 높지만 그렇게 지각된 유능함을 사회적 판단에 활용하는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문화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유능함 외에도 다른 속성들도 유추하며 그렇게 유추된 정보는 적어도 상호독립적인 문화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단서로 이용된다(Holtz, 2015; Rule, Krendl, Ivcevic, & Ambady, 2013; Todorov, aron, & Oosterhof, 2008). 그렇다면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다른 속성들도 지각된 유능함처럼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사회적 판단에 중요한 단서로 이용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유추할 수 있는 속성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문화 간 차이가 발견되었던 유능함은 사회적 함의가 적은 개인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Markus & Kitayama, 1991), 유능함과 같은 개인적 속성보다는 인간관계, 사회관계망과 같은 사회적 속성이 판단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판단에 주는 영향을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 보다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속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격 특질의 속성에 따라 문화 간 차이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Sedikides, Gaertner, & Toguchi, 2003)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구체적으로, Sedikides와 동료들은 미국인과 일본인 참여자들의 자기 고양(Self-enhancement) 성향을 다양한 성격 특질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함의가 적은 개인적 속성과 관련된 성격 특질(예를 들면, self-reliant, unique 등)에서는 미국인들만 자기고양 성향을 보인 반면, 사회적 속성과 관련된 성격 특질(예를 들면, cooperative, loyal 등)에서는 오히려 일본인들이 자기고양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상호의존적인 문화권의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고양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학문적 논쟁이 있지만(Heine, 2005), 이런 결과는 사회적 함의가 있는 성격 특질은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성격 특질의 속성이 문화 간 차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속성, 구체적으로 인간관계가 한국 선거에서의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한국과 같은 상호의존적 문화에서 사회적 관계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속성은 개인적 속성에 비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런 예상과 일관되게 얼굴에서 지각되는 따뜻함과 사회적 유능함은 각각 일본(Rule et al., 2010)과 대만(Chen, Jing, Lee, & Bai, 2016)의 선거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들의 얼굴에서 지각될 수 있는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이 한국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가설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Na와 동료들의 연구(2015)를 반복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Na와 동료들의 연구에는 한국에서 지역감정과 그에 따른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강한 영남과 호남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개인의 속성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색과 특정 정당 선호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지역에서 검증해보려고 하였다. 둘째, Na와 동료들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후보자의 얼굴에서 지각되는 사회적 속성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했다. 한국과 같은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얼굴에서 지각되는 사회적 속성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적 속성에 비해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셋째, 지역색과 특정 정당 선호도가 강하지 않은 지역은 정치적 관심이 높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얼굴이 대중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대학생 및 일반 성인들을 참가자로 모집할 수 없었다. 후보자들의 얼굴을 몰라야 하는 실험 논리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심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기대되는 초등학교생들을 참가자로 모집하였다. 얼굴 지각 및 성격 유추 과정에서는 3세 이상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판단이 거의 다르지 않다는 선행 연구 결과(Cogsdill et al., 2014)를 참고하면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Na와 동료들의 선행 연구(2015)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선거 지역, 얼굴에서 유추해야 하는 속성의 성격, 참가 대상자의 연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도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인지 및 문화 심리 분야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양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 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선호 정당이 뚜렷한 지역을 피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정치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얼굴에 기반을 둔 특질 평가(trait inferences)는 3-4세만 되어도 어른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5-6세에 이르면 어른들과 같은 수준의 일관성을 보인다는 것이 Cogsdill등(2014)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인 얼굴 판단은 실제 투표에 참여한 성인 유권자들이 내린 판단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92명의 학생들 중 45명(남:21 & 여:24)은 2012년 총선 후보자들의 얼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47명(남:25 & 여:22)은 2016년 총선 후보자들의 얼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 절차

연구에 사용할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우선, 특정 정당의 지지도가 높아서 개별 후보자들의 특성이 당락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호남 지역은 제외되었다. 대신, 무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

도권 지역과 충청도 지역의 지역구에서 2012년, 2016년 총선별로 역대 선거에서 야당과 여당의 후보가 돌아가며 당선되었던 선거구 30곳을 선정하였다. 2012년 총선의 경우, 선정된 지역구의 당선자와 차점자를 쌍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하지만 2016년 총선의 경우 선거일 전에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선자와 차점자를 알 수 없어, 선정된 지역구의 당선 유력 후보 2명을 함께 제시하였다. 선정된 후보들의 얼굴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선거 포스터를 통해 확보하였다. 사진을 찍은 목적과 맥락에 따라 얼굴 사진을 통한 인상 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Todorov & Porter, 2014), 같은 목적을 갖고 비슷한 맥락에서 촬영된 공식 포스터 사진을 이용하였다. 같은 이유로 제스처를 사용하거나 모자를 착용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구로 대체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Na et al., 2015; Todorov et al., 2005)와 같이 옷의 색깔, 피부톤, 후보자의 나이 등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거 포스터에 사용된 얼굴 사진을 사용하되, 어깨의 위쪽에서 시작하여 목과 얼굴만을 오려내어 흰 바탕에 흑백사진으로 출력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준비된 한 쌍의 얼굴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유능함과 인간관계를 평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간관계는 참여자들이 초등학교생인 점을 감안하여 두 사람 중에 친구가 더 많아 보이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서두에서 논의한 것처럼 상호의존적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유추하도록 하였다. 일본(Rule et al., 2010)과 대만(Chen et al., 2016)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좋아할만한’과 같은 속성을 이용하였지만 초등학교 참여자들에게는 후보자의 인간관계의 질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친구의 수를 물어 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각된 유능함은 누가 더

유능해 보이는가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지만 초등학생 참가자인 것을 감안하여 질문을 누가 더 똑똑해 보이는가로 수정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은 제시된 얼굴 사진을 보고 유능함과 사회적 관계를 평정하였다. 한 가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 여러 개의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신뢰도나 타당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는 Todorov와 동료들의 연구(2005)를 모델로 하여 유능함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문 각 1개씩만 활용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직관적으로 인상을 평정하게 하는 질문 한 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이 실제 선거의 결과를 잘 예측한다는 사실이 이미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대형 강의실에서 9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앉은 자리에 따라 2012년 총선 조건과 2016년 총선 조건에 할당되어 각 선거에 참여한 후보 30쌍의 얼굴 사진을 보고 지각된 사회적 관계와 유능함을 묻는 설문지에 차례로 답하였다. 두 설문지 사이에는 휴식 시간이 주어졌으며 각 설문지 실시 전에 연구 보조자들이 설문 작성 방법을 구두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대형 강의실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참여자들이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실험 상황 통제를 위하여 다수의 연구 보조원(6-7명)이 연구의 진행을 도왔다. 설문을 작성한 후에는 연구 보조원들이 설문에 포함된 사람들 중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아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한 참여자의 수는 많지 않았고(2012년 총선: 5명), 아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한 참여자들도 사진의 주인공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아는 사람이라고 지목한 후보가 속한 쌍은 그 참여자에 한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포함시키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와 유능함이 2012년 총선과 2016년 총선의 당선자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각 선거별로 확인해보았다. 다음으로 2012년 총선과 2016년 총선 사이의 차이와 성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2012년 총선

참여자들의 지각된 사회적 관계와 유능함 평정이 2012년 총선 결과를 얼마나 잘 예측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각 참여자별로 더 친구가 많아 보인다고 선택된 후보와 더 똑똑해 보인다고 선택된 후보가 당선자일 확률을 구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관계와 지각된 유능함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확률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지각된 사회적 관계($M = .55, SD = .08$)가 지각된 유능함($M = .51, SD = .08$)보다 2012년 총선 결과를 더 잘 예측하였다, $t(44) = 2.15, p = .037$ (그림 1 참조). 또한 지각된 사회적 관계의 경우 선거 결과를 예측할 확률이 우연 수준인 .50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t(44) = 4.11, p < .001$, 지각된 유능함의 경우는 우연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 $t(44) = .91, p = .368$. 즉,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Na et al., 2015), 얼굴에서 유추한 유능함은 한국의 선거 결과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연구의 가설과 같이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유능함보다 선거 결과를 더 잘 예측하였다.

2016년 총선

2016년 총선, 역시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M = .55, SD = .10$)가 유능함($M = .46, SD = .07$)에 비해 선거에서의 당선자를 더 잘 예측하였다, $t(46) = 5.16, p < .001$ (그림 1 참조).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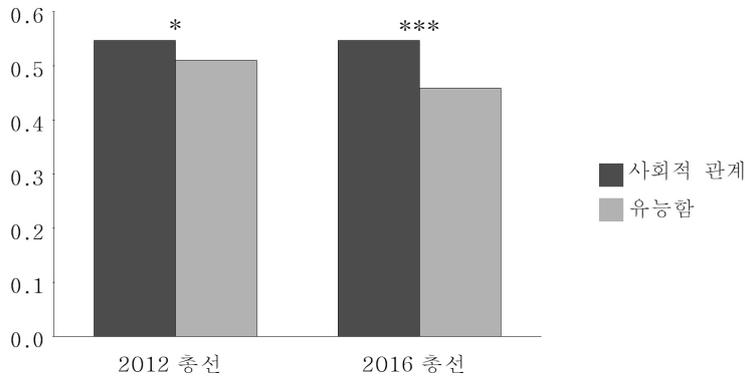


그림 1. 지각된 사회적 관계와 유능함이 당선자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 평균

한 2016년 총선에서도 지각된 사회적 관계는 선거 당선자를 우연 수준(.50)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예측하였다, $t(46) = 3.38, p = .002$. 다시 말해서,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한국 사람들의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의 가설은 본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 다만, 2016년 총선에서는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능함이 선거의 당선자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은 우연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t(46) = -4.20, p < .001$. 이런 결과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미리 예측되지 않았음은 물론, 2012년 총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결과 대한 추가적인 해석은 논의 부분에 다루었다.

2012년 총선과 2016년 총선 비교

다음으로 2012년 총선과 2016 총선 결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2(선거 연도: 2012년 vs. 2016년) × 2(판단 종류: 사회적 관계 vs. 유능함) 혼합 변량 분석(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선거 연도는 피험자간 요인(between-subject factor)이었고 판단 종류는 피험자 내 요인(within-subject factor)이었다. 분석 결과, 판

단 종류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90) = 26.80, p < .001, \eta_p^2 = .23$. 즉, 각 총선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각된 사회적 관계는 지각된 유능함보다 선거 당선자에 대한 더 좋은 예측요인이었다. 그리고 선거 연도와 판단 종류의 상호 작용도 유의미하였다, $F(1, 90) = 4.61, p = .035, \eta_p^2 = .05$. 이렇게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던 것은 지각된 사회적 관계에서는 선거 연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M_r = .55$ vs. $.55, t(90) = -.01, p = .99$, 지각된 유능함은 2016년 총선의 당선자($M = .46$)를 2012년 총선의 당선자($M = .51$)에 비해 덜 잘 예측하였기 때문이었다, $t(90) = 3.44, p = .001$. 즉, 선거 연도와 판단 종류의 상호작용은 지각된 사회적 관계가 아닌 지각된 유능함에서의 차이 때문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각된 유능함이 2016년 총선의 당선자를 예측할 확률은 우연 수준보다도 낮았다. 같은 이유로 선거 연도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1, 90) = 5.05, p = .027, \eta_p^2 = .05$.

종합하면, 후보의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문화인 한국의 선거를 잘 예측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2012년, 2016년 총선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그러나 후보의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후보의 개

인적 속성, 즉 지각된 유능함은 한국의 선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2016년 선거에서는 지각된 유능함의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가 관찰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얼굴이 그 사람의 사회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제시되는 2명의 얼굴 중에 “친구가 많아 보이는 사람(사회적 관계)”과 “똑똑해 보이는 사람(유능함)”을 고르도록 하였다. 함께 제시된 두 명의 얼굴은 한 선거에 참여할 두 명의 후보자였다. 따라서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유능함이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여 얼굴에서 지각된 사회적 관계는 2012년, 2016년 총선 결과를 일관적으로 예측하였지만 얼굴에서 지각된 유능함은 그렇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Na와 동료들의 연구(2015) 결과를 확장하여 반복 검증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Na와 동료들은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적 속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능함이 상호의존적인 문화권인 한국의 선거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특정 정당 선호도가 지나치게 강한 영남과 호남의 선거구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결과가 특정 정당 선호가 강하지 않은 지역만을 대상으로도 반복 검증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선거구 중 역대 선거 결과가 특정 정당에 치우쳐져 있지 않은 곳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선거구에서도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능함이 선거의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Todorov와 동료들의 최초 연구와 더불어 서구권의 추후 연구들(Antonakis & Delgas, 2009; Sussman et al., 2013; Todorov et al., 2005)은 후보

자 얼굴에 드러나는 유능함이 선거 결과의 유효한 예측 변인임을 반복 검증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이런 결과가 문화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내재적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호의존적인 문화(Markus & Kitayama, 2010)에서는, 유능해 보이는 얼굴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a와 동료들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밝혀진 후보자의 얼굴과 선거 결과의 관계가 정치적 관심사가 낮은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초등학교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성인들의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거 후보들에 대한 사전 노출과 같은 각종 오염 변인들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얼굴을 바탕으로 한 유능함과 신뢰성의 판단에서는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Cogsdill et al., 2014)와 일관되는 결과로 이는 얼굴을 통한 인상 형성에 사회적 경험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얼굴을 통한 인상 형성 과정을 분석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얼굴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사회적 속성, 이를테면 사회적 관계가 한국의 선거 결과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얼굴에 드러나는 따뜻함과 사회적 유능함이 각각 일본과 대만의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Chen et al., 2016; Rule et al., 2010)뿐 아니라 문화 심리학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와도 일맥상통한다. 미국과 같은 상호독립적인 문화에서는 개인의 내재적 속성이 자기 개념의 핵심인 반면, 한국과 같은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자기 개념의 핵심이다(Markus & Kitayama, 1991; Na, Grossmann, Varnum, Kitayama, Gonzalez, & Nisbett, 2010). 자기 개념은 다양한 사회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광범위한 영향(Baumeister, 1998)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개념의 문화 차이는 다양한 사회 인지 과정의 문화 차이로 이어진다(Ji Nisbett, & Su, 2001; Masuda & Nisbett 2001;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귀인과정의 문화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내재적 속성을 강조하는 상호독립적인 문화권의 사람들과 달리,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상호의존적인 문화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의 내재적 속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려고 한다(Choi & Nisbett, 1998; 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이런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본 연구는 상호의존적인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얼굴을 볼 때도 인간관계와 같은 그 사람의 사회적 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회적 속성은 후보자들의 실제 인간관계와 같은 외적 요인이 아닌 후보자들의 얼굴에서 유추되었기 때문에 이런 추론은 후보자들의 내재적 속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 어떤 사람의 내재적 속성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판단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회적 속성과 밀접히 관련된 내재적 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친구가 많아 보일 것 같은 얼굴의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후보보다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우연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히 친구가 더 많아 보이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확률은 2012년, 2016년 선거 모두에서 약 55%정도로 똑똑해 보이는 얼굴이 선거를 예측하는 정도나 우연 수

준인 50%보다는 높았다. 이는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사회적인 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Sedikides et al., 2003).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55%는 상호독립적인 문화권의 선거에서 유능해 보이는 얼굴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길 확률인 약 60에서 70% 사이(Na et al., 2015; Todorov et al., 2005)와 비교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즉,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 특히 중요한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속성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독립적인 문화권에 비해 후보자의 얼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사회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보자의 얼굴이 한국 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참여자의 나이, 구체적 실험 절차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연구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오염 변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초등학교 참여자들에게서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은 추후 연구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국과 같은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 후보자의 얼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독립적인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Lenz와 Lawson(2011)의 연구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치 상황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의 얼굴과 같은 피상적인 정보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상호의존적인 문화의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이 정치적 관심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피상적인 정보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의 선거는 지역주의 구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이갑윤, 1997). 다시 말해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지역 연고를 암시하는 고향이나 지역 정당의 소속 여부와 같은 다른 종류의 피상적인 정보에는 민감하

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처럼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강조한다는 연구 결과(Brewer & Chen, 2007)에 부합한다. 또한, 한 문화의 유권자들이 다른 문화 유권자들보다 선거에서 피상적인 정보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보다는 각 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면 그것이 피상적이라도 사람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추후 연구에서 이런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2016년 선거에서는 더 똑똑해 보이는 얼굴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우연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똑똑해 보이는 얼굴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과제를 이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Na et al., 2015) 본 연구의 2012년 선거에서도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사회적 판단에 핵심 축으로 일컬어지는 유능함(Competence)과 따뜻함(Warmth) 차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ske, Cuddy, Glick, & Xu, 2002).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개 사회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2016년 선거에서는 유능해 보이는 얼굴의 후보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유독 2016년 선거에서만 나타났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상의 분석은 과해석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석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개인적 속성인 유능함을 드러내는 얼굴이 한국의 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본 연구의 전체적인 가설과

상충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속성이 사회적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상호독립적인 문화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던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능함의 이점이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는 문화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얼굴의 특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서구 중심의 심리학 연구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심리 과정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발전시킨다면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서의 문화 차이에 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얼굴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확인되었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얼굴 이외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론 다른 연구에서도 후보자들의 얼굴에 대한 평가가 선거 결과를 100%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선거 결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이력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자들의 얼굴 인상이 이들 요인과 비교하여 얼마나 큰 영향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 문화 차이가 있을 것인지 등은 흥미로운 후속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갑윤 (1997).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Antonakis, J., & Dalgas, O. (2009). Predicting Elections: Child's Play! *Science*, 323(5918), 1183. doi: 10.1126/science.1167748
-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1, pp.

- 1085-1740). New York, NY: McGraw-Hill
- Brewer, M. B., & Chen, Y. -R. (2007). Where (Who) Are Collectives in Collectivism?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Review*, 114(1), 133-151.
- Chen, F. F., Jing, Y., Lee, J. M., & Bai, L. (2016). Culture Matters: The Looks of a Leader Are Not All the Sam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6), 570-578. doi: 10.1177/1948550616644962
- Choi, I., & Choi, Y. (2002). Culture and self-concept flexibi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1), 1508-1517.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49-960.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1), 47-63.
- Cogsdill, E. J., Todorov, A., Spelke, E. S., & Banaji, M. R. (2014). Inferring Character From Faces: A Developmental Study. *Psychological Science*. doi: 10.1177/0956797614523297
- Fiske, S. T., Cuddy, A. J. C.,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902. doi: 10.1037/0022-3514.82.6.878
- Heine, S. J. (2005). Where is the evidence for pancultural self-enhancement? A reply to sedikides, gaertner, and toguchi (200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4), 531-538.
- Holtz, B. C. (2015). From First Impression to Fairness Perception: Investigating the Impact of Initial Trustworthiness Beliefs. *Personnel Psychology*, 68(3), 499-546. doi: 10.1111/peps.12092
- Imada, T., & Kitayama, S. (2010). Social eyes and choice justification: Culture and dissonance revisited. *Social Cognition*, 28(5), 589-608.
- Ji, L. -J., Nisbett, R. E., & Su, Y. (2001). Culture, change, and prediction. *Psychological Science*, 12(6), 450-456.
- Kitayama, S., Duffy, S., & Uchida, Y. (2007). Self as cultural mode of being. In S. Kitayama & D. Cohen (Eds.),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pp. 136-174). New York: Guilford Press.
- Lenz, G. S., & Lawson, C. (2011). Looking the Part: Television Leads Less Informed Citizens to Vote Based on Candidates' Appear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3), 574-589. doi: 10.2307/2302493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2010). Cultures and selves: A cycle of mutual constitu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4), 420-430.
- Masuda, T., & Nisbett, R. E.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ersu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922-934.
- Na, J., Grossmann, I., Varnum, M. E. W., Kitayama, S., Gonzalez, R., & Nisbett, R. E. (2010).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always reducible to individual differen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7(14), 6192-6197.
- Na, J., Kim, S., Oh, H., Choi, I., & O'Toole, A. (2015). Competence Judgments Based on Facial Appearance Are Better Predictors of American Elections Than of Korean Elections. *Psychological Science*. doi: 10.1177/0956797615576489
- Na, J., & Kitayama, S. (2012). Will people work

- hard on a task they choose? Social-eyes priming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1), 284-290.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310.
- Oosterhof, N. N., & Todorov, A. (2008). The functional basis of face evaluation. *PN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5(32), 11087-11092. doi: 10.1073/pnas.0805664105
- Rule, N. O., Ambady, N., Adams, R. B., Jr., Ozono, H., Nakashima, S., Yoshikawa, S., & Watabe, M. (2010). Polling the face: Prediction and consensus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1), 1-15. doi: 10.1037/a0017673
- Rule, N. O., Krendl, A. C., Ivcevic, Z., & Ambady, N. (2013). Accuracy and consensus in judgments of trustworthiness from faces: Behavioral and neur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3), 409-426. doi: 10.1037/a0031050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60-79.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378-1391.
- Sussman, A. B., Petkova, K., & Todorov, A. (2013). Competence ratings in US predict presidential election outcomes in Bulgaria.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4), 771-775. doi: <http://dx.doi.org/10.1016/j.jesp.2013.02.003>
- Todorov, A., Baron, S. G., & Oosterhof, N. N. (2008). Evaluating face trustworthiness: A model based approach.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3(2), 119-127. doi: 10.1093/scan/nsn009
- Todorov, A., Mandisodza, A. N., Goren, A., & Hall, C. C. (2005). Inferences of Competence from Faces Predict Election Outcomes. *Science*, 308(5728), 1623-1626. doi: 10.1126/science.1110589
- Todorov, A., Pakrashi, M., & Oosterhof, N. N. (2009). Evaluating faces on trustworthiness after minimal time exposure. *Social Cognition*, 27(6), 813-833. doi: 10.1521/soco.2009.27.6.813
- Todorov, A., & Porter, J. M. (2014). Misleading first impressions: Different for different facial images of the same person. *Psychological Science*, 25(7), 1404-1417. doi: 10.1177/0956797614532474
- 1 차원고접수 : 2016. 09. 07.
수정원고접수 : 2016. 11. 13.
최종게재결정 : 2016. 11. 23.

Facial inferences of social relations predicted Korean elections better than did facial inferences of competence

Jinkyung Na

Sogang University

Jin Huh

JTBC

We hypothesized that social competence inferred from faces would be a better predictor of Korean elections than competence judgments made about faces.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we recruited 92 Korean children (10 years of age & 46 females) and showed them 30 pairs of faces consisting of two candidates from either 2012 or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or each pair, participants indicated 1) the person who might be smarter (competence) and 2) the person who might have more friends (social competence). In support of the hypothesis, perceived social competence significantly predicted the election outcomes. However, perceived competence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lection outcomes in 2012 and had negative effects on election outcomes in 2016. The findings suggest that, when making social judgment, personal attributes like competence may not be important whereas social attributes like social relations may serve as a critical factor in interdependent cultures.

Keywords : Face Perception, Political Elections, Impression Formation, Culture, Social Cognition